

제18대 총장에 김춘성 치의예과 교수 선임



▲우리 대학 김춘성 신임 총장

우리 대학 법인이사회가 김춘성(55) 치의예과 교수를 제18대 총장에 선임했다.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18대 총장 선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 김춘성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최종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11월 30일부터 2027년 11월 29일까지 4년이다.

김춘성 신임 총장은 지난 11월 치러진 제18대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교수·교직원·학생·총동창

회 환산 득표율 25.154%를 기록, 타 후보 득표율 25.062%와 불과 0.092% 앞서 총장 후보 1순위로 이사회에 추천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장 선출 방식을 바꿔 전 구성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직접 투표를 도입했다. 온라인 투표에는 교수, 직원, 학생, 총동창회 등 유권자 18,584명 가운데 6,539명이 참여해 35.1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김춘성 신임 총장은 우리 대학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미네소타대학 의과대학 약리학실 박사후연구원을 거쳐 2009년부터 우리 대학에 재직하고 있다. 이후 산학협력단장, 링크사업단장,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장, 기획조정실장, 대학혁신사업지원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남도 블루바이오 자문위원, 완도군 해양자유 자문위원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춘성 신임 총장은 선거에서 대학 유휴부지 개발 추진, 국책사업 선정 유치 등을 통한 재정 확립, 지역발전을 이끄는 CSU-도시캠퍼스 실현 등을 공약했다. 또한, 재정이 든든한 대학, 교육·산학에 진심인 대학, 네트워크가 탄탄한 대학, 행정력이 결집한 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대학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하늘 기자

jeongsy1109@naver.com

2024 THE 세계대학평가 순위 국내 28위 달성

1946년 개교한 우리 대학은 '지역과 함께 100년, 학생과 함께 미래로'라는 건립 이념을 목표로 한다. 이는 최초의 민립 대학으로서 위상을 표명하고 있다. 건학 100년을 향해 발전해 가고 있는 우리 대학이 올해 2024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28위, 호남지역 사립대 중 1위를 달성했다.

민영돈 총장은 최근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발표한

2024 THE 세계대학평가 순위에서 세계 1,201~1,500위에 진입, 국내 39개 대학 중 28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호남지역에서는 사립대 중 1위를 차지했다.

2024 THE 세계대학평가의 평가 영역은 ▲교육여건(29.5%) ▲연구환경(29%) ▲연구의 질(30%) ▲산학협력(4%) ▲국제화(7.5%) 등으로 나뉘었다. 이중 산학협력 분야에서 71.9점을 기록했다. 또한, 다섯 개 지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영예를 안았다.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THE는 1971년 설립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대학평가기관으로 2004년부터 세계 대학 순위, 소규모 대학 순위, 아시아 대학 순위 등 다양한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순위에는 전 세계 108개국 1,904개 대학이 포함됐으며, 국내 대학은 39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박혁은 수습기자

back9370@naver.com

우주기술연구소, '스타브릿지센터' 운영



▲2023 우리 대학 우주기술연구소&브릿지센터

최근 일상으로 다가온 우주기술과 그 방향에 대해 교류·협력하는 공유의 장이 펼쳐졌다. 우주기술연구소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선정한 '스타브릿지센터'(STAR: School Teacher And Research institute)로 선정됐다.

스타브릿지센터에서는 지역 단위 과학기술 연구기관을 연계해 교사가 직접 연구에 참여하고 첨단 과학기술 연구 경험에 기반한 교수·학습 및 평가 설계와 탐구·실험 활동 등 과학교육 관련 연수 프로그램, 콘텐츠, 컨설팅을 개발하고 제공한다.

박현주 부총장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해 ▲박설현 기계공학과 교수와의 스몰토크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및 다양한 디지털 도구 실습 ▲생성형 AI의 이해를 통한 학교 현장 활용 방안 ▲창의성과 실패의 연결고리 등의 강의·실습 프로그램 등과 스타브릿지센터 연구 참여 교사가 연구진과 협력하여 개발한 첨단 과학기술 수업 영상

등을 선보였다.

우리 대학 임석훈과 제1공학관에서 열린 오프라인 연수에서는 '우주, 인간, 약기의 음악'을 주제로 한 특별공연을 비롯해 뉴스페이스와 초소형 위성 이해, 공학 수업에 대학 교수학습 성찰이라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이날 연수에서는 스타브릿지 연구 참여 교사가 지난 4개월간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공위성과 환경 프로젝트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 촬영 위성 만들기 ▲아두이노로 제작하는 위성 광통신 장치, 위성과 우주 광물을 연수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시간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박현주 센터장은 "교사 연수 외에도 학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일반인 대상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우주기술 과학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슬기 기자

dvjhyg@naver.com

태권도학과 출신 박혜진·이경학 선수 세계 대회 쾌거

우리 대학 태권도학과 출신 박혜진·이경학 선수가 각각 항저우 아시안 게임과 청두 하계세계 대학 경기대회에서 메달을 거머쥐었다.

박혜진 선수는 지난달 26일 중국 저장성에서 열린 여자 53kg급 결승전에서 대만의 린웨이춘 선수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박 선수는 "쉽진 않지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기의 흐름이 수월하지 만은 않았다고 밝혔다. 1라운드 역전에 성공하며 우승을 예감했지만 2라운드에서 패배, 마지막 3라운드 12-9로 완벽한 역전승을 이뤄냈다. 박 선수는 이전 타 대회에서도 준우승을 거뒀지만 메이저 대회의 우승에는 첫발을 내딛

었다. 또한, "그간 좋지 못한 성적에 속상함도 있었지만, 큰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됐다"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이경학 선수는 어릴 적 몸이 약하고 체격이 왜소해 부모님의 권유로 태권도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대회에 처음 출전한 것은 태권도를 시작한 지 10년 만이었고 세계 대회 출전은 이번이 처음이었음에도 단체전에서는 금메달을, 개인전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하며 자신을 각인시켰다. 이 선수는 "어릴 적부터 실력보다는 운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이번 대회에는 실력을 입증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최근 손등 부상이 있었지만, 이 또한 극복해 내 전국 체전에서도 실력을 내보이고 싶



▲박혜진·이경학 선수

다"며 자신의 포부를 전했다.

박혜진·이경학 빛나는 두 선수의 멋진 행보를 응원한다.

정민 수습기자

wjdals0064@naver.com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완도에서 CSU 사제동행 줍깅 데이 성료

우리 대학 기후위기대응 융합 인재양성사업단 HUSS에서 주최한 'CSU 사제동행 줍깅 데이' 프로그램이 지난달 28일에 열렸다. 지난달 20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으며 우리 대학 학생 40명, 교직원 20명 모집을 공고했다.

이 프로그램은 해양환경 정화 활동프로그램으로 ▲완도군 해양치유센터 방문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일원으로 장소를 선정해 본격적인 해양환경 보전 및 정화 활동에 앞섰다. 활동 참가자의 특전으로는 참가비 전액 무료, 기념품 제공(제로 웨이스트 키트), 기후행동마일리지 50M 부여로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는 ▲해양쓰레기 심각성 재조명 및 해양

환경 보전 및 정화 활동(클린 줍깅-줍GO! 걷GO!) ▲연안환경미술행동 퍼포먼스다.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에 위치한 완도해양치유센터에 방문하며 탐방이 진행됐다. 이 치유센터는 국내 최초로 해양자원을 활용해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이다. 해수·조류·머드와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재활, 질병 예방에 효과적인 16개 테라피실 운영, 해양치유산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완도해양치유센터 본 건물을 비롯해 해양문화치유센터와 청산 해양치유공원이 조성돼 있다.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직접 방문해 사제동행 간 망망대해의 바닷길을 따라 걸으며 모래사

장에 버려진 해양쓰레기들을 수거하는 줍깅 활동, 연안환경미술행동 퍼포먼스에 참여하는 활동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어 CSU 사제동행 줍깅 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연우(기계공학·3) 학우를 만나 사회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모연우 학우는 “프로그램을 공동대 게시판으로 처음 접했으며 포스터를 보고 나서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됐다”며 “주변 지인이 같이 가자고 해서 바로 신청했다”고 참여 계기를 밝혔다.

또한, 그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는데 역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줍깅이었고 처음에는 생각보다 쓰레기가 없다고 느꼈지만, 막상 줍깅을 시작하니 쓰레



▲완도해양치유센터 외관 전경

기가 너무 많이 나와 해양쓰레기 무리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고 전하며 인터뷰를 마

박희은 수습기자

back9370@naver.com

소방재난관리학과 의용소방대, 충장축제 퍼레이드 장려상 수상



▲2023년 충장축제 소방재난관리학과 퍼레이드

우리 대학 소방재난관리학과가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개최한 '제20회 광주 충장축제'에서 거리 퍼레이드 부분 장려상을 받았다.

광주 충장축제는 광주를 대표하는 변화가인 충장로의 특징을 살려 기획된 축제다. 매년 10월에 열리며 축제의 가장 큰 볼거리인 '충장 퍼레이드' 중 국민 참여 퍼레이드인 '빛 내려온다'에 우리 대학 소방재난관리학과 학생들이 구성된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가 참가했다.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는 우리 대학 대학생 전문 의용소방대를 널리 알리고 싶어 대회에 출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재

및 인명사고 등으로부터 광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과 함께 화합해 광주의 안전을 지키자는 주제의 상황극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소방재난관리학과 배승용 교수는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한 것에 비해서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잘 해줬고, 그 덕분에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내년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기흥엽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 대장은 “다 같이 연습하고 노력해서 수상까지 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대학 대학생 전문의용소방

대 대장으로써 맡은 책무를 성실히 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의용소방대원 박재영 학생은 “광주 동부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 대원으로서 또 우리 대학 소방재난관리학과 학생으로서 선보였던 퍼레이드가 광주시민들에게 화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민들 안전의식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넓히고 광주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미영 수습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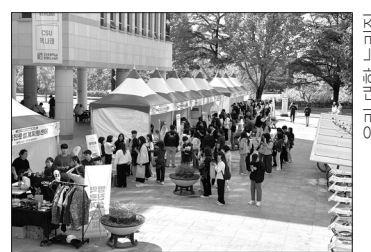
see0195@naver.com

2023 동고동락(同GO同樂) 페스티벌 개최

지난달 18일 11시부터 16시까지 5시간 동안 우리 대학 동고동락 길(중앙도서관과 국제관 사이길)에서 '2023 제3회차 동고동락(同GO同樂)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비교과 통합관리센터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함께 가면 더욱 즐거운 학교 생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학생들의 비교과 프로그램 접근성 향상과 참여 동기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러 부서가 참여해 비교과 홍보 부스를 운영했으며 부스로는 ▲취업전략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창업 교육센터(CSU 창작 마을센터) ▲LINC 3.0 사업단 ▲원스톱 학생상담센터 ▲글쓰기센터 ▲교수 학습역량개발팀 ▲언어교육원 ▲시민 르네상스평생교육원 ▲병무청 ▲신한은행이 참여했다. 행사에는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지역민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톨렛 이벤트와 스탬프 이벤트를 통해 기념품과 먹거리를 증정했다.

특히, 지역사회 연계 병무청에



▲우리 대학 동고동락 길에서 열린 '2023 제3회차 동고동락(同GO同樂) 페스티벌'

서는 병역 진로 설계 상담을 진행했다. 올해 9월부터 우리 대학의 주거래 은행이 된 신한은행에서는 모바일 학생증 개시를 통한 전자출결과 학사 공지 등 학사 서비스 유용 앱 홍보에 함께 참여하고 학생들을 위한 편의 서비스 또한 직접 제공했다.

정부가 조선대 비교과 통합관리센터장은 “부서 간 지속 가능한 고유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홍보·상생할 수 있는 소통의 장(長)이 마련돼 우리 대학 비교과 비전인 '동고동락(同GO同樂): 함께 가면 더욱 즐거운 캠퍼스'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민 수습기자

wjdals0064@naver.com

조대신문

www.chosun.ac.kr/chnews

1954년 9월 15일 창간

민족대학 건설에 이바지 / 대학언론 창달에 기여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발행인_총장 민영돈 / 편집인_김 주간_김봉철

편집국장_정하늘 / 인쇄인_박만수

주 소_61453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편집실_062-230-6162 / FAX_062-234-3014 / 행정실_062-230-6166

텅 빈 영화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곳 중 하나인 영화관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종식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발걸음은 많이 끊긴 상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영화관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영화관의 매출이 점점 떨어지더니 사태가 해결된 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며 현재 영화관은 이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코로나19의 발생

영화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코로나는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영화관의 관객 수는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뉘는 정도로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는 심각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 2019년에는 영화 <극한 직업>, <기생충>, <어벤져스>, <겨울왕국> 등 1,000만 영화가 많이 등장한 덕분에 2019년의 전체 관객 수도 역대 최고치를 찍을 정도로 영화관은 우리에게 친근하고 부담 없는 곳이였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폐쇄된 공간인 영화관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여러 영화가 개봉을 연기했고, 손익분기점을 넘는 영화들도 줄어들었다.

또한, 관람 인원 제한과 상영관 안에서의 팝콘, 음료 등의 취식 불가능으로 인해 관객 수는 4분의 1 토막이 날 정도로 바이러스의 영향은 컸다.

티켓값의 상승

영화관은 코로나19 이후 가격을 세 번이나 인상했다. 코로나 전에 비해 4,000원가량 티켓값이 올랐으며, 좌석마다 추가적인 가격을 붙였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돈을 더 내야 한다.

즉, 이제는 “할 거 없는데 영화나 볼까?”라는 가벼운 질문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가격이 상승했다는 뜻이다. 가격이 비싸진 만큼 선택에 더 신중하게 되고, 영화의 개봉 전 홍보나 노출이 없는 소규모 영화의 경우에는 더 팔리기 힘들어진 지배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곳 중 하나가 영화관이기에 불가상승률까지 생각하면 영화관에서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해 보였지만, 티켓값이 비싸지다 못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스러

운 가격으로 다가왔다.

또한, 거리 두기 기간 동안 OTT가 급부상하면서 영화관의 대체제로서 나타났으며, 영화 한 편을 볼 가격에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OTT가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합리적이기 때문에 영화관의 티켓값은 소비자에게 훨씬 부담스러워졌다.

OTT 플랫폼의 등장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같은 OTT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항상 영화는 영화관에서 큰 스크린으로 보는 것을 선호했으며, 신작도 영화관에서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영화관의 선호가 깨지게 된 것은 코로나19가 발생하고 OTT 플랫폼의 등장 후 급성장을 이루고 나서부터였다.

소비자들은 영화관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망을 찾게 됐고, 영화관에 굳이 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인 OTT의 이용률은 크게 상승했다.

영화관에서는 영화 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맞춰야 했지만, OTT는 자신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활용에 제약이 없다. 또한 <환승연애>, <오징어게임>, <무빙> 등 OTT만의 독점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영화관뿐만 아니라 TV 시청률에도 영향을 주고 있을 정도로 OTT의 등장은 미디어 산업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볼 거 없는 영화

개봉했다 하면 관객 수 1위를 기록했던 마블 시리즈가 도태되고, 인기를 보장했던 블록버스터 장르의 영화들이 하락세를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개봉하는 영화들 대부분이 관객 수 100만도 넘

기기가 힘든 상황이다. 물론 이중에서는 여전히 성적이 좋은 영화들도 존재한다. 지난 5월에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3>는 과거 상영했던 시리즈와 더불어 이번에도 1,000만을 달성했으며, 작년 2022년 12월에 개봉한 영화 <아바타2>도 1,080만의 관객이 영화관에 방문했다. 비싸진 티켓값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영화관에 방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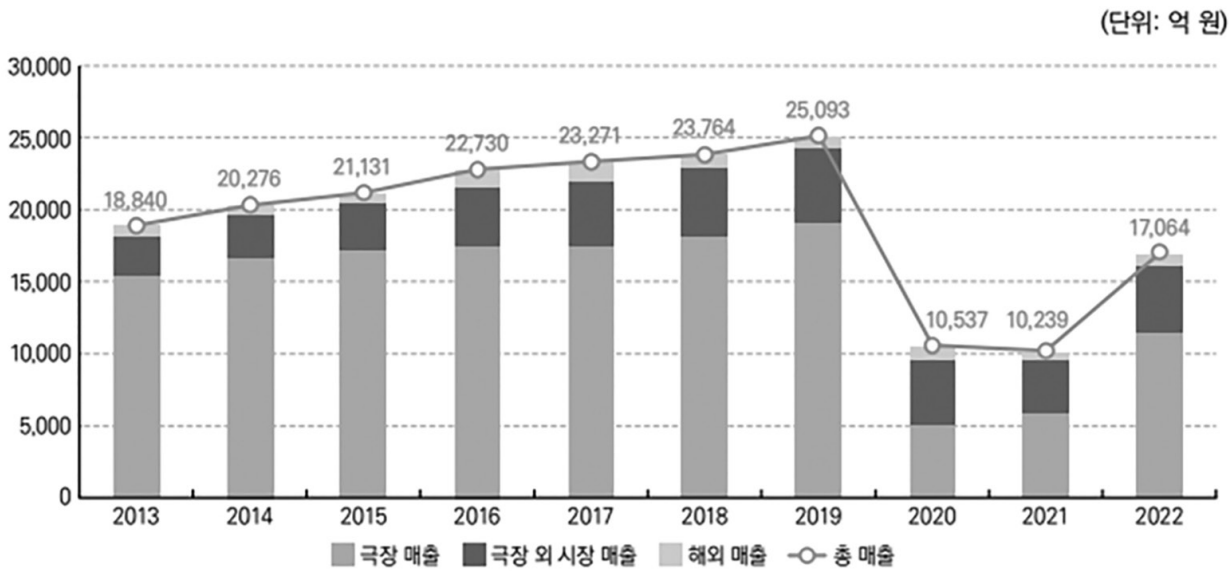
하지만 위와 같은 수치는 일부 영화에만 해당하며, 계속해서 영화관에서의 부진한 성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영화 퀄리티’의 문제다. 당장 유튜브에 ‘영화관’에 대해 검색만 해봐도 소비자들은 “큰 기대를 받는 대작 정도는 돼야 영화관에 간다”, “비싸진 티켓값에 비해 영화가 재미없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다. 즉, 이들은 비싸진 티켓값과 효율적이고 편리한 OTT의 장점을 뛰어넘을 만한 영화들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 영화관에선 이들이 만족할 만한 영화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영화관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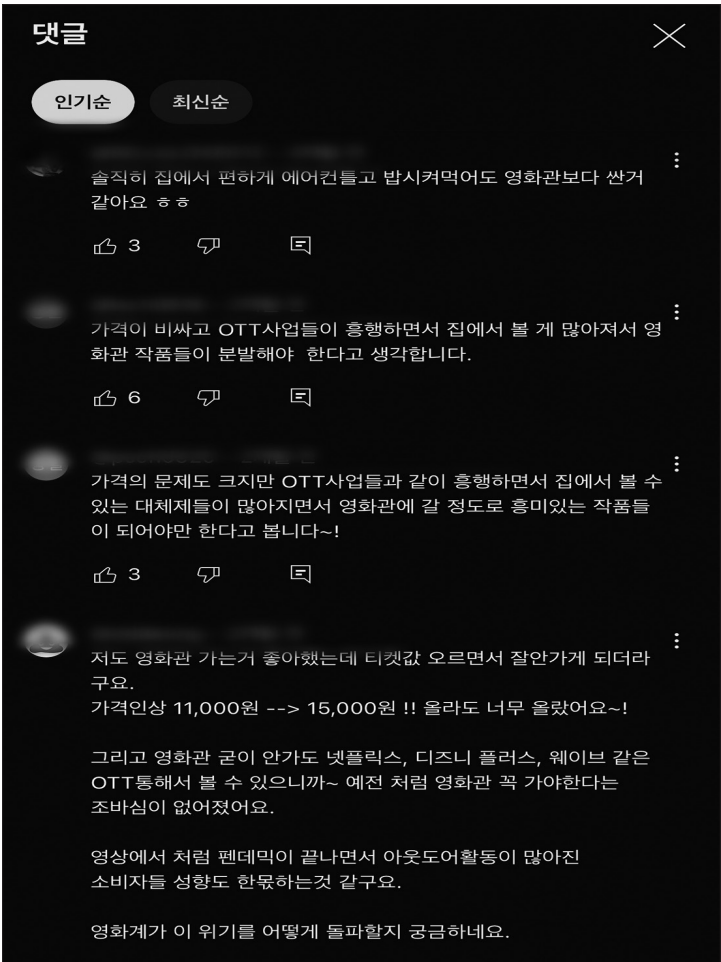
영화관이 효율성이나 가성비 측면에서 OTT에게 밀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화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도 앞서 언급했듯 영화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장점은 존재한다. 큰 스크린과 좋은 음질이 주는 웅장함은 영상을 관람하는데 깊은 몰입이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계속되는 영화관의 하락세에 대해 최근 영화관들은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영관에서 단순히 영화만 시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 [그림 1] 2013~2022년 한국 영화산업 주요 부문(극장, 극장 외 시장, 해외) 매출 추이



▲ 영화산업 매출 추이



▲ 영화관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

스포츠 경기, 콘서트 등을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게임, 전시회 등이 가능해졌다.

또, 영화관은 상영관의 서비스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 노력한다. 리클라이너 좌석 설치나 한정된 영화관의 음식이 아닌 초밥, 파스타 등의 먹거리를 시켜 먹거나 즐길 수 있게 됐다. 기술적으로도 아이맥스, 4DX, 스크린X, 돌비 시네마 등 개인의 선호도와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효과와 영상기법을 결합한 특별한 상영관을 선보이고 있다.

즉, 최근에 영화관들은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지 ‘영화’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극장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만

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단지 코로나19의 영향으로만 텅 빈 영화관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티켓값의 상승, OTT의 등장, 볼 거 없는 영화 등의 여러 이유가 맞물리게 되면서 현재 영화관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영화관은 당장 가격을 올려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생각하는 것보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OTT와 비교했을 때 극장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노력을 통해 영화관이 다시 활기를 찾게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우리 대학 김춘성 제18대 총장을 만나다

“CSU 도시 캠퍼스로 거듭나겠다”

2023년 10월, 우리 대학 제18대 총장으로 김춘성 치의예과 교수가 선임됐다. 앞으로 어떻게 해쳐 나갈지에 대한 외부의 관심과,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갈 리더십에 대한 구성원들의 열망 속에 임기를 시작할 김춘성 신임 총장이다. 87학번으로 입학해 총장직을 시작하기까지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을 조대인으로 살아온 제18대 김춘성 총장을 만나 조대신문이 인터뷰했다.

제18대 총장 당선, 소감 한마디

우리 대학 이사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김춘성 교수를 차기 총장에 선임했다. 김춘성 신임 총장은 “우선 학교 운영에 있어 소신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다만 앞으로 놓인 과제와 더불어 준비 과정에 있어 기쁜 감정보다는 긴장감이 더 크다고 이야기했다.

신임 총장은 “학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어려워진 학교의 재정 문제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다.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또 글로벌과 같은 시스템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이에 걸맞은 대대적인 혁신과 행정 및 학사 구조 개편에 있어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신임 총장은 “수년 동안 산업협력 부단장부터 시작해 단장, 처장, 링크사업단장, 해양생물 연구교육센터장, 기획조정실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 대학의 실적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며 “우리 대학 출신으로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전과는 조금 다른 교육으로 변화를 주고 싶다”고 총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총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

신임 총장은 “가장 먼저 학생들이 오고 싶은 대학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같다”며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는 우리 대학이 되기 위해 발로 뛰겠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 환경에 대해 부진한 투자를 극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교육과정과 커리큘럼 개설 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간단히 언급했다.

지역발전을 이끄는 CSU-도시 캠퍼스 실현



▲이달 9일 제18대 김춘성 총장과 인터뷰를 나눴다.

신임 총장은 선거에서 대학 유휴부지 개발 추진, 국책사업 선정 유치 등을 통한 재정 확립, 지역발전을 이끄는 CSU-도시캠퍼스 실현 등을 공약했다.

더불어 취임 직후 최우선으로 본부 구성을 마치고 글로벌 대학 사업 재도전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신임 총장은 “현재 대학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다 보니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에 나아가 호남 전체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학 본부 인적 구성을 마치는 대로 글로벌 대학 사업 재도전에 착수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사업 선정에 총력 매진하겠다.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설득하는가 하면 필요할 때는 강한 추진력을 보이면서 대학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대학의 도약과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임 총장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존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발전하는 교육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인 것 같다”며 “세상에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다양한 유전자가 존재한다. 어떤 특별 환경이 부딪혔을 때 다시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요구

에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지역에 보급해 줘야 하며 이러한 선순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분명 한계점이 있겠지만 다양한 문화를 최대한으로 수용해 기회를 넓히는 교육을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사회, 세계 속에서 우리 대학은 어떤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인가

특화산업은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해 지역적 공간에서 여러 자원을 활용하여 특성화된 분야로 발전시키는 산업이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혁신적인 특화산업을 육성해 균등한 기회를 얻고 다방면에 특화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임 총장은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해 미래가치 창출 역량을 향상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며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취업을 위한 산업과 인재를 성장시켜야 한다.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위해 다양한 기업들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문화의 장을 펼치며 최대한으로 수용하는 선순환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를 이뤄내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우리 대학이 글로벌화되기 위해선 “우리 것을 만들어 세계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세계에 발맞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만이 지닐 수 있는 특색을 담아 글로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원활한 민주적인 운영과 체계방식으로 운영해 기업의 경제적 활동 성과에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평가 포괄적인 기업가치를 산출하는 활동을 일컫는 ESG 경영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ESG 경영의 예로 환경친화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역량을 펼치며 세계화를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다. 또한, 우리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잘 교육해서 자체적으로 정주 인력으로 만들어 나가고 외국에 있는 업체들과 인력을 보급받으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통달할 힘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 대학이 나아가고 변화해야 할 점, 학생들이 최우선으로 키워야 할 역량은 무엇인가

우리 대학이 발전해 나가고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학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학에서는 전문적인 학문을 배우고 학생들은 다양함을 경험하고 탐구하며

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놓여있다. 또한,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공부하고 창의적으로 학문을 탐구하기 위해 졸업을 유보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성이 보인다. 이에 우리 대학 교육과정에서 대학 생활의 연장선으로 기존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취업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방향성을 구축했다.

신임 총장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적성과 흥미를 고민하여 다양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대학의 장을 넓히고 올바른 진로 선택과 직무역량을 도모할 기회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우리 지역에서 취업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더불어 정주 인력을 안정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우리 대학의 안정성을 위해 다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낮설고 특별한 환경에 부딪혔을 때 극복할 힘을 기르기 위해 학생들의 요구에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특화산업을 언급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학우들에게 전하는 조언

신임 총장은 “앞서 언급했듯 자신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믿고 능동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들에 많이 힘쓰고 싶다. 이러한 환경에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서만 미래를 바라보는 것보다 인생의 체험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체험의 기회와 역량을 키워주고 싶다”고 전했다. 신임 총장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하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앞으로 학생들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을 내비쳤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27년 11월 29일까지 4년이다.

정하늘 기자
jeongsy1109@naver.com

김슬기 기자
dvjhgy@naver.com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즐기는 가을과 독서



▲책 읽는 ACC 현장

10월, 후덥지근한 바람이 가시고 공기가 제법 시원해진 계절 가을이 찾아왔다. 그런데 소위 말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한유가 아들의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 지은 시의 한 구절로 '등화가친의 계절'이라 쓰고 가을을 가리킨다. 이는 가을이 날씨가 서늘하고 하늘이 맑으며 수확이 풍성해 마음이 안정되고, 공부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라는 말을 의미한다. 가을은 모든 생명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기이며 곡물들은 씨앗의 형태로 모양을 바꾸고 동물들은 겨울잠에 들기 위해 먹이를 잔뜩 비축한다. 공간에 곡식을 비축하듯 사람 역시 독서를 통해 지식을 담아둬야 한다.

책 읽는 ACC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 '책 읽는 ACC'를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했으며 방문한 시민들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도심 속 열린 도서관을 조성했다. 아시아문화광장에 위치한 '책 읽는 ACC'는 공연존, 리딩존, 참여존으로 이뤄졌다. 공연존에서는 국내 유일의 비브라폰 재즈밴드 '굿 펠리스'의 공연과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이름을 날린 탭 댄서들, 실력과 보컬로 이뤄진 탭 댄스 밴드 '밴드 바람'의 공연을 금요일과 토요일로 나눠 진행했다.

재즈공연 이후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존 카니 감독의 스타 명성을 잃은 음반 프로듀서와 스타 애인을 잃은 싱어송라이터가 함께 노래하는 <비긴 어게인>과 우연히 만나게 된 두 남녀가 음악을 통해 사랑의 감정을 쌓아가는 <원스>라는 음악영화를 금요일과 토요일에 나눠 상영했다.

글쓰기로 삶을 이야기하는 작가, 이슬아

20일 토요일 오후에는 더욱 특별한 행사로 준비돼 있었다. <일간 이슬아>를 창간하고 2023년 한국 문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작가 1위에 선정된 이슬아 작가의 북토크가 진행됐다. 앞선 공연들과 다르게 이슬아 작가의 북토크는 사전 예약으로 진행됐고 신청 페이지가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전 신청 100명이 금세 매진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었다. 실제로 북토크에 참여한 인원은 뒷좌석과 무대 옆에서 서서 들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슬아 작가는 '글쓰기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라는 주제를 통해 자전의 전반적인 글쓰기를 지속한 이야기를 얘기하며 연재노동자의 삶을 비유했다. 이슬아 작가는 북토크를 시작하며 방문한 시민들을 향해 '동료'라고 지칭했다. 각종 다양한 미디어로 볼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북토크를 찾겠다는 것, 그리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머지않아 우리가 동료로 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어딘갈방'이라는 장소에서 10대 시절부터 20대까지 7년 동안 글쓰기를 끊이지 않고 했던 시절과 어딘가 특출나게 글을 잘 쓰지는 못했지만, 자신은 '못하는 것을 꾸준히 잘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하며 글을 연습하기 위한 전반적인 방식을 설명했다. 글은 본디 손보다 온몸으로 쓰는 것이기에 서서, 앉아서, 누워서 다양한 자세로 쓰되 운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과 글은 쓰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라며 꾸준히 글을 적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글방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는 등의 말을 전했다.

이슬아 작가는 <일간 이슬아>라는 월에 1만 원을 내면 4주간 메일로 글을 받아 볼 수 있는 문학 직거래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 작가로 떠올랐다. 어린 시절 시장 촌에서 자라면서 조부모님께 박리다매, 즉 이익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것을 교육받으며 성장했다. 이후에 작가의 인세가 10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낙담하던 차

에 농산물 상자 바깥에 상인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 <일간 이슬아>를 만들게 됐던 뒷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이슬아 작가는 최근 책 『끝내주는 인생』을 출간하면서 있었던 사진작가 이현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사진가와 여행을 간다는 것은 불시에 자주 멈추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촬영을 위해 일본에 방문했을 때 수시로 길을 가다 멈춰서서 사진을 찍는 작가 옆에서 멋쩍게 서 있던 순간이 자주 있었는데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끝내주는 인생』의 표지가 탄생했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시민들과 작가가 하나 돼 의미 있는 북토크 시간을 마무리했다.

책으로 연결된 다양한 체험

아시아문화광장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리딩존에는 빈백과 캠핑 의자로 구성돼 누구나 편하게 앉아 뒤쪽에 비치된 다양한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자리로 이뤄져 있다. 편하게 쉬고 독서하는 공간과 더불어 공연 중에는 관객석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자유로운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리딩존과 맞붙어 있는 참여존에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참여 공간이 마련돼 있다. 상시 프로그램으로는 나의 인생 책을 추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 책을 추천받을 수 있는 '인생 책방'과 책을 읽고 마음에 남는 책 속의 문장을 필사하는 '마음을 채운 문장들', 가을을 주제로 누구나 시를 적어 함께 시집을 만드는 '마음에 찾아온 가을'이 있다. 특



별 프로그램의 경우 21일 토요일에만 진행됐다.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해 최근 7년 이내 출간한 아동도서를 대상으로 '책 기부 캠페인'이 진행되기도 했으며 라탄으로 나만의 책갈피를 만들 수 있는 '라탄 책갈피 만들기', 나에게 맞는 독서법과 책을 처방받는 '나의 독서 MBTI', 직접 나만의 책을 만들 수 있는 '내손내책', 원하는 문장으로 캘리그래피 염서를 만드는 '하느님인 손글씨', 행운의 문구와 독서 명언 포춘쿠키를 뽑을 수 있는 '행운의 포춘쿠키'와 포토박스에서 함께 한 사람들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인생책킷'이 마련됐다.

ACC의 가을밤 피크닉

책 읽는 ACC 이외에도 전시해설과 함께 공연, 체험 등과 함께 가을밤 정취를 즐기는 야간투어 '가을밤 피크닉'도 지난 9월과 지난달에 진행됐다.

이 투어는 18시부터 20시 30분까지 총 2시간 30분간 진행돼 전당 야외 공간에서 장소 특정적 전시의 특성을 전시 '하느님 풍경'을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관람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평온한 가을밤을 선사할 아시아의 향을 담은 아로마 인센스 스틱과 나무 인센스 트레이를 만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60년대 쿨재즈부터 현대적인 모던재즈까지 다양한 사운드를 연주하는 'NS 재즈밴드'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순서로 구성돼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독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가의 작품과 더불어 아시아 문화연구를 기반으로 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신념이 만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결과물을 생산해내는 국제적인 예술기관이자 문화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는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참여자들이 연구, 창작, 제작의 단계를 수행하는 통합적인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1년 내내 다양하고 역동적인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가을밤의 정취를 즐겨보기를 추천한다.

양미영 수습기자

see0195@naver.com



교수칼럼

그 사람을 가졌는가

1. 중학교 때 일이다. 졸업을 앞두고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 교지에 실릴 글로서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 교지에 실릴 글로서 짧게 한 마디씩 적어내라고 한 적이 있었다. 다들 머리를 싸매고 뭔가 근사한 말을 남기기 위해 애쓰는 흔적이 역력했다. 나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두고두고 회자될 수 있는 명언(!)을 남기기 위해 고심하였다. 그리하여 내가 남긴 한 마디는 다음과 같았다.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긔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때는 가졌는가.
- 함석헌,
'그 사람을 가졌는가' 중에서 -

2. 우리는 무수한 인연의 연결고리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송고한 만남의 인연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가 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고 볼 일이다. 상호 주체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에게 참다운 존재의 가치를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무엇' 말이다. 김춘수 시인도 다음과 같이 노래하지 않았던가.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김춘수,
'꽃' 중에서 -



정구태 교수
(공공인재법무학과)

3.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의 존재로 인해 누군가가 웃음 짓고, 마음 설렐 수 있구나, 참 생각만 해도 흥분되고 떨리는 일 아닌가. 이 가을 나의 존재로 누군가의 마음

속 호수에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상념에 젖어 본다.

당신, 끝내 자신이 그렇게 사랑받고 있음을 영영 모르겠지요
몇 자 적다 이 사랑 내 마음대로 찢어
처음 본 저 강에 버릴 테니까요.
불쌍한 당신, 버림받은 것도 모르고 밤을 우물대고 있겠조.
나도 혼자 밥을 먹다 외로워지면 생각해요.
나 몰래 나를 꺼내보고는 하는 사람도 혹 있을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복할 이도 혹 있을까 말예요...
- 김경미,
'엽서, 엽서' 중에서 -

4.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누군가에게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무엇', 나아가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긔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이 되기 위해, 나는 오늘도 너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준다.

비는 싫지만 소나기는 좋고
인간은 싫지만 너만은 좋다.
내가 새라면 너에게 하늘을 주고
내가 꽃이라면 너에게 향기를 주겠지만
나는 인간이기에 너에게 사랑을 준다.
- 이해인,
'너에게 띄우는 글' 중에서 -

서석대

내면에 비친 짙은 그림자

누군가가 내게 “넌 어떤 사람이야?”, “넌 혹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물음을 던진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온전히 ‘나’라는 사람에 대해 깊이 사유해 볼 것이다. 깊은 사유 끝에 삶을 되돌아보니 정작 나의 내면을 무시한 채 외면에 치중된 삶을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니 나는 내재돼 있는 무의식을 애써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은 사실상 깊은 내면에 존재하고 있지만, 전부를 통찰하고 자기 내면에 대해 완전한 이해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수렴한다.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아닌, 나에 대한 욕심과 기대만을 바라며 스스로에 대한 작은 실수나 힘든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쳤다. 항상 자신을 베풀 끝없이 몰아둔 채 견디며 살았던 것 같다.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속이면서 정말 버티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을 하곤 했다. 마치, 나는 어떤 가면을 쓴 정체불명의 존재 같아 보이기도 했다.

“이제야 나는 깨닫게 됐다.” 내가 주인공인 주체적인 삶이 아닌, 타인이 중심이 되어 타인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들이 내재돼 있었고 타인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삶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사실상 내 내면에는 수많은



김슬기 기자
dvjhgy@naver.com

걱정과 불신이 가득했다. 이러한 불신으로 내면의 그림자도 커지고 있었다.

대부분 우리의 그림자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확률이 높다. 누군가에게 감추고 싶은 모습일지도 모른다. 나 또한 평소 내 그림자와 직면하고 싶지 않아 회피를 선택하고 그 선택

에 따른 자신에 대한 실망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자 속에 있는 나와 마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내면의 그림자는 왜 생겼을까?” “혹시 지금까지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을 보고 지낸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본연의 나를 오롯이 이해하지 못하고 보고 싶은 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왜곡된 시야를 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켜 나의 욕구를 타인에게 투영하여 비춰보고 나를 잃어가는 것은 아니었을까?

지금의 나에게는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인과 비교하며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나’라는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하고 한층 더 성장해 나가는 ‘나’와 마주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다.

내면에 비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법을 터득해 나아갈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 경지 끝엔 잠재된 내 내면의 소리를 들을 힘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수습일기

경험의 회복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 근육의 힘, 그것이 바로 회복탄력성이다. 글자에 있는 ‘탄력’이라는 말 그대로 나는 튀어 오르듯 부푼 꿈을 안은 채 대학에 입학했다. 나는 신입생으로서 대학이라는 관문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진정 대학생이 된 것을 실감했다.

나는 대학에 진학 후 가장 먼저 동아리 활동을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바람이었다. 어느 날 학교 내 동아리 홍보부스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태권도 동아리에 동기와 함께 가입하게 됐다. 내게 동아리 활동은 경험의 첫 출발 선상이었다. 동기 및 선·후배들과 함께 수련하는 시간만큼은 귀중하고 가슴이 뛰었다. 마치 책 속에 새로운 지식을 탐독하듯, 매 순간 달라지는 태권도 기술이 새롭고 흥미롭게 다가왔다. 태권도는 대학 생활에 지친 내게 활기를 넣어줬고 심신을 수양하며 마음이 단련되는 것 같았다. 또한, 태권도라는 경험은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역경에 부딪치더라도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끔 이바지했다.

나는 작년 12월 겨울날, 태권도 승단 심사에 참여했다. 승급심사 전에 주어진 시간만 단 한 달뿐이었다. 실전처럼 실연하



박희은 수습기자
back9370@naver.com

기 위해 평소보다 강도 높은 훈련이 지속되고 반복적인 코치가 진행됐다. 나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동작들이 좀처럼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아 까마득한 걱정이 앞섰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탈락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태권도 기술을 충분히 숙지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지배했다. 태권도라는 종목을 처음 접한 나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하지만 딛고 일어서야 했다. 승급심사 당일엔 몹시 추웠지만, 동아리원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조언은 겨울의 추위를 잊게 만들어줬다. 꾸준히 연습했던 동작들과 겨루기, 격파 등을 위주로 심사가 치러졌다. 그동안의 노력 덕분인 걸까? 나는 긴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임하며 연마한 동작을 보여줬다. 비록 1단을 취득했지만 내겐 행운과도 같은 값진 선물이었다.

심사 준비까지 고된 시련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내 마음을 굳건하게 다져주는 기반이 된 것 같다. 나는 내 삶을 영위함에 앞으로 무엇이든 도전해 보고 싶다. 어떤 경험이든 좋다. 직접 부딪히고 도전하며 경험을 체득하는 것이 각자의 회복탄력성에 큰 산물이 되리라 생각한다.



제보 및 문의 : chnews21@daum.net
☎ 230-6162

사설

제18대 집행부 출범을 앞두고

제18대 총장으로 김춘성(치의예과) 교수가 선임되었다. 김춘성 차기 총장 선임자는 지난 10월 11일 구성원들의 투표와 10월 26일 이사회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제18대 총장으로 최종 선임되었다. 임기는 이달 30일부터 시작된다. 이제 김춘성 차기 총장은 제18대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학교를 이끌어갈 계 된다. 우선 축하하며 기대가 크다.

그러나 차기 총장이 걸어야 할 길은 그리 쉬운 길이 아니다. 헤쳐나가야 할 가시덤불이 산적해 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과제는 ‘글로벌 대학 30’의 선정이다. 우리 대학은 올해 ‘글로벌 대학 30’ 예비 지정에서 탈락했다. 첫해에 ‘글로벌 대학 30’에 선정되었더라면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우리 구성원들도 그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다음 기회가 있었기에 현 집행부에 큰 책임을 묻

지 않았다. 그러나 두 번의 실패는 구성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는 2024년에 10개교,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5개교를 더 선정할 계획이다. 2024년 ‘글로벌 대학 30’에 선정되느냐 탈락되느냐는 차기 총장의 능력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종이 될 것이다. 내년에도 선정이 안 된다면 후폭풍이 거세어질 것이다.

또 다른 과제는 학교 재정문제이다. 지난번 사설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대학은 10년 넘게 동결된 등록금과 거의 0원에 가까운 법인 전입금 등으로 재정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교직원의 급여 동결, 교수 연구비나 교직원 복지 재원 축소 등 긴축재정으로 버티기에는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총장은 학자이기보다는 경영자이다. 따라서 학문적 마인드보다는 경영적 마인드가 요구된다. 다행히도 김춘성 차기 총장 선임자는 기획실장, 연구처

장, 산학협력단장, 링크사업단장 등을 역임하여 누구보다도 학교 재정 상황을 잘 이해하고, 또 국책 사업의 노하우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기 동안 학교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당부한다.

법인 이사회와의 관계 설정도 김춘성 차기 총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사실 우리 법인은 1987년 이후 임시 이사와 정이사 체제를 반복해 오면서 구성원들과 갈등과 반목이 되풀이되었다. 겉으로는 통합된 것 같지만 아직도 법인과 학교 구성원 간의 완전한 화학적 결합은 안된 것 같다. 법인은 학교를 불신하고, 학교는 법인을 불신하는 상황에서는 학교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차기 총장은 정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법인 사회와의 관계 설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학령 인구 감소 등 헤쳐나가야 할 난제는 산적해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총장 혼자서 해결해 나갈 수 없다. 그렇기에 함께 일할 보직자 인선이 중요하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보직자 인선의 결과를 보면, 총장의 학교 운영 철학을 알 수 있다. 보직은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베푸는 혜택의 자리가 아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춘성 교수는 젊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총장 임기를 마치고도 다시 교수로 돌아와 몇 년간 학교에 남아야 한다. 2위와의 득표율 차이가 0.09%라는 점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구성원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때 동시에 두 눈을 뜨고 지켜볼 것이다.

데스크에서

기록과 영감의 축적

내가 지금까지 쓴 활자 수만 따지자면 몇십만 자를 넘어갈 것이다. 내 학보사 활동은 분명 글 쓰는 연습에 박차를 가해줬다. 정해진 분량을 단기간 내에 써내거나, 문화 활동을 경험하면 글로 소감을 표현했다.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고 발로 뛰며 글로 써 내려갔다. 처음엔 기사 소재를 정하는 것조차 일주일 내내 고민한 채 마감 기한에 몰아 급하게 글을 쓰기도 했다. 글감이 잘 떠오르지 않아 주변인들에게 물어보며 좋은 소재가 있을지도 자주 고민했다.

현재 이 글을 쓰는 것처럼 나는 글 쓰는 장소가 장소인지라 누군가 읽는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기에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나 또한 남의 글을 열심히 찾아 읽었다. 흥미롭거나 읽기 어려운 글은 여러 번 읽어 봤다. 그러면서 초반에 어색하고 모았던 내 글은 부끄럽고 읽기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좌절도 경험했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날도 있었다. 어느 날엔 뇌가 멈춘 듯 원하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껏 그 최초의 시도와 용기, 끈기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내가 글을 쓰는 이유와 그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정하늘 편집국장
jeongsky1109@naver.com

점차 글을 쓰는 일 외에도 남들의 글을 읽는 데 익숙해지는 시기가 찾아왔다. 퇴고의 과정은 사소한 부분이다. 크게 보면 내용과 구조이고, 한 단계 내려오면 문장의 길이와 조형미라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보기엔 어색하지만 어떻게 고쳐야 할지 마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세밀한 부분을 건드려야 한다. 바로 단어와 서술어의 나열에 집중하는 것이다. 분명 부족한 부분도 존재하겠지만,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읽히며 눈을 매끄럽게 다듬은 문장으로 이끌도록 문장을 다듬는다.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기호에 꼭 맞다.

본인의 글은 본인의 영혼이 담겨있다. 그러나 내 눈에 적절한 형태의 활자인지는 읽어봐야 한다. 아니라고 판단하는 능력 또한 읽어야 늘기 마련이다.

내가 학보사에 쓴 글은, 쉽게 되지 않더라도 문장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초기에 글감을 정하지 못하고 당일에서야 글을 쓰는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머리에 수많은 글감이 무수히 쌓여왔으며 당일이 되면 가장 잘 익은 열매를 하나 골라 깨끗이 다듬는다. 주기적으로 수동적인 요구지만, 내게 필요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내가 학보사 활동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봐도 다르지 않다. 각자의 글과 문화예술을 위해 혹은 누군가는 반드시 기록해야만 하기에 학보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다. 기록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것이기에, 나는 기록의 힘을 믿고 꾸준히 기록하고자 한다. 어떻게 보면 이 기록들은 내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 매체들을 통해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싶다는 내 바람이다.

글을 쓰는 것에 대한 거창한 의미를 담지 않아도 이는 시간이 지나 다시 보면 볼수록 더욱 소중한 게 다가올 것이다.

날/말/퍼/즐

하	심	동	센	릿
주	기	지	스	락
세	타	터	요	약
조	동	이	감	자
노	동	브	고	마

- 우리나라에서는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단순 기능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을 ○○ ○○○○라고 한다.
- 일반인이 복용할 경우 중독 증상에 신체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심하면 사망을 유발하게 되므로 ○○ 및 항정신성약물의 복용은 크게 제한되어 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운명을 함께하는 사이를 가리키는 표현. ○○ ○○
- 에서는 지역 단위 과학기술 연구기관을 연계해 교사가 직접 연구에 참여하고 첨단 과학기술 연구 경험에 기반한 교수·학습 및 평가 설계와 탐구·실험 활동 등 과학교육 관련 연수 프로그램, 콘텐츠, 컨설팅을 개발하고 제공한다.

지난호 정답

중간고사 화이팅

지난호 정답자

김서영(광기술공학과·2)
박진우(법학과·3)

※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지운 뒤 마지막에 남은 단어들을 조합해 답을 찾은 뒤 학과, 학번, 학년, 이름, 핸드폰번호와 함께 11월 30일까지 chnews21@daum.net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발표는 다음 호 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학생증을 가지고 학생회관 1층 조대신문사로 오시면 스타벅스 교환권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수령기간은 2023학년도 12월 3일까지입니다.

흔들리는 ‘마약 청정국’

‘마약 청정국’.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를 이르는 말이었지만 더 이상 우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이러한 양상이 청소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약물은 ‘펜타닐’로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이다. 펜타닐은 흡입하거나 주사를 하는 행위 없이 간단하게 패치를 붙임으로써 약효를 볼 수 있기에 마약에 대한 거부감과 진입장벽을 낮췄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단순한 호기심과 또래와 함께 한다는 유대감 때문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에서 약물을 구매하고 투약하는 것일까? 과거 마약은 소수의 고위 인사나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지위 또는 재력을 남용해 구매하는 등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SNS를 통해 간단한 검색 몇 번이면 싼 값으로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며 청소년의 마약 노출이 빈번해진 것이다.

투약 방법이 간단하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의 필라델피아에는 ‘좀비 도시’라 불리는 거리가 있다. 이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도시 전체가 펜타닐에 잠식돼 거리에는 약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있거나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몸이 경직돼 기이한 자세로 멈춰있는 사람들이 즐비하다. 당국 경찰도 고개를 내저을 정도이니 이에 대한 심각성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필라델피아의 경우 제약회사의 실수로 인한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나 펜타닐의 위험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예시다.

마약의 경우 나라마다 처벌과 반응이 다양하다.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견장을 수 없어 손을 떼버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가까운 마약 처벌이 강력한 나라 중 하나로 과거 청나라 시절 이들은 아편과 끔찍한 전쟁을 치렀다. 그렇기에 그 위험성을 똑똑히 알고 있으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마약에 대한 처벌은 사형까지도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말한 펜타닐을 소지 또는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유통 또는 운반에 가담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청소년 사범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청소년도 예외 없이 법



▲청소년 마약류사범 적발 추이

률을 적용하겠다고 강수를 뒀지만, 마약의 위험성에 비해 처벌은 미미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따라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살아가며 자기 몸과 마음을 바르게 수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나 미성숙한 청소년기에는 어떠한 선택과 유혹에 굳건하지 못하고 충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마약은 나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모두를 위협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청소년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사회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이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민 수습기자

wjdals0064@naver.com

이주 노동자의 인력 사태

우리 사회에서 이주 노동자 인력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인력 전쟁이라고도 불리며, 특히 농어촌의 일손이 부족해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 노동자 고용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고용 현상에 따라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과 인권침해 등 부조리한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

실제 농어촌에도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의 12%가 농축산업에 배정됐고, 5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계절 근로제도 있다. 그러나 합법 이주 노동자마저 농어촌을 떠나고 있으며 이주 노동자들이 열악한 농어촌 근로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으로 향한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현장

협의회’를 개최해, 17개 광역지자체(외국인력 담당 실·국장)와 함께 지역별 외국인력(E-9) 수요 조사 및 중앙-지방 체류지원 협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 명으로 늘리는 등 고용허가제를 확대·개편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김슬기 기자

dvjhg@naver.com

도를 넘는 청소년 범죄

현재 사회에선 도저히 청소년들이 한 행위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범죄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단순 절도, 학교 폭력을 넘어 성범죄, 집단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충남 천안 집단폭행 사건에는 30여 명의 또래 학생들이 관련돼 있었으며,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신상과 함께 SNS에 유포했다. 폭행에 가담한 가해 학생 대부분은 초·중·고생으로 만 14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이들이 하는 범죄 정도를 살펴보면 절대 가볍지 않다. 오히려 성인 범죄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졌으며, 이들은 성인과 달리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천안 집단 폭행 사건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법은 그들을 올바르게 나아가게 할까? 실제로 경찰청이 공개한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년범 재범률은 지난 2020년 32.9%로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즉, 이러한 법은 교화할 것이라는 목적과 달리 그들이 또다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 따

라서 범죄 정도에 따른 처벌과 소년범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적절한 제도가 필요하다.

김세진 기자

zlw0726@hanmail.net



이달의 포토



▲한단락 독립서점 모습

독서와 함께하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가을 향과 정취가 만연한 가을 날씨가 이따금 찾아왔다. 천고마비라 선언한 계절 가운데 독서로 지식의 양식을 쌓고 독서의 미학을 느껴보면 좋을 듯하다. 내가 방문해 본 곳은 우리 대학 후문 내 위치한 ‘한단락’이라는 독립 서점이다.

한단락 독립 서점은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동네 책방’으로서 자리매김한 곳이다. 다른 독립 서점과 사뭇 다르게 이곳은 간단하게 차가운 술과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있었다. 주로 야간 시간대에 운영해서인지 다소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 속 향유할 수 있는 느낌을 담았다.

고즈넉한 분위기에 재즈가 잔잔하게 들리는 가운데서 읽었던 책은 기억 한편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다. 지금, 이 순간 독서를 하는 순간이 영원한 지혜가 내게 무언가 속삭이듯 몰입하게 되는 느낌이 들었다.

한단락 독립 서점에는 판매되는 책 외에도 다양한 굿즈도 있어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지친 학교 일상에 독립 서점을 방문해 보며 내게 휴식과 같은 시간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

박희은 수습기자

back9370@naver.com